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12. 10.(목) / 총 5매(본문3, 참고3)	
국토교통부	철도건설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민태, 사무관 신용섭, 주무관 이재훈 • ☎ (044) 201-3952, 4781	
국가철도 공단	일반철도처	담 당 자	• 처장 한상연, 부장 김문수 • ☎ (042) 607-3481, 3912	
	호남권사업단	담 당 자	• 단장 차문규, 부장 김겸연 • ☎ (062) 602-5203, 5271	
보 도 일 시		2020년 12월 1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10.(목) 15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군장산단 인입철도·익산~대야 개통·사해인축 물류거점 도약

- 산단·항만 국가철도망 연계로 환황해권 물류발전·경쟁력 기대 -

□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항역 ~ 장항선 신 대야역을 연결하는 군장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와 장항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익산~대야 복선전철 개통으로 군장산단 및 군산항이 환황해권 물류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국가철도공단(이사장 김상균)은 군장산단 인입철도*(대야역~군산항역, 28.6km) 및 익산~대야(14.3km) 복선전철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12월 10일 개통식과 함께 영업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.

* 인입철도: 현지에서 발생하는 철강, 석탄 자원과 컨테이너 등 주요 품목을 산단·항만에서 주요 간선철도로 수송할 있도록 이어주는 철도

○ 이번 개통식은 코로나-19 확산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넓은 부지 확보 및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군산항역에서 개최되며, 국토교통부, 국가철도공단, 지자체 등 최소 인원(100명 이내)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.

□ 본 사업은 2012년 12월 동시에 착공하여 약 8년간 추진되었으며,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는 총 사업비 6,167억 원, 익산~대야 복선전철은 4,946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되었다.

□ 군장산단 인입철도 사업은 총 연장 28.6Km이며, 군산항역 1개소, 교량 19개소(7.7km), 터널 4개소(1.2km), 토공 19.7km로 구성되었다.

○ 기존 군산역 화물취급 기능을 군산항정거장으로 이전하여 종이, 석탄, 철강, 컨테이너 등 주요 품목을 광양권(520TEU/일), 부산권(132TEU/일)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.

* TEU(Twenty-foot equivalent units) : 20ft(6m)의 컨테이너 1개를 나타내는 단위

- 군산·군산2국가산업단지는 두산인프라코어(주), 타타대우상용차(주), (주)세아제강 등 700여 개('20.6월 기준)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, 이번 개통으로 건설기계, 부품, 철강 등의 물류수송이 전국 단위의 국가 철도망과 연계되어 정시성 및 안정성을 갖춘 대량수송이 가능해진다.

○ 군산항 및 산업단지 입주 업체는 전국 철도망과 군산항역을 연계한 일괄수송체계가 구축되어, 산단·항만의 물류 거점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및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익산~대야 복선전철 사업은 총 연장 14.3Km이며, 대야역 1개소, 교량 11개소(7.5km), 토공 6.8km로 구성되었다.

○ 이번 개통으로 선로용량이 23회/일 → 130회/일로 증가하고, 철도를 횡단하는 철도건널목 15개소가 입체화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된다.

○ 한편, 익산~대야 복선전철 사업은 장항선 복선전철 구간 중 첫 단계 개통사업(비전철 개통)으로 '24년 모든 구간(총 연장 118.6Km)이

개통되면 서해안축 주요간선 철도망(경부선~장항선~전라선*)이 완성되며, 향후 장항선과 서해선('22년 개통예정), 원시~소사('18.6월 개통) 소사~대곡('21년 개통예정), 경의선이 연결되어 서해안축 지역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.

* (경부선) 서울-천안, (장항선) 천안-홍성-익산, (전라선) 익산-여수

- 아울러, 다가오는 장래에 서해안축 간선철도망은 한반도 종단철도인 경의선과 북한의 개성~신의주를 거쳐 대륙철도로 이어져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“이번 개통으로 군산이 서해안축 물류 거점으로 도약함은 물론, 산단·항만이 국가철도망과 연계되어 환황해권 물류경쟁력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”한다면서,

- “익산~대야 복선전철 개통과 더불어 장항선 전철화 사업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, 서해선축에 준고속열차(EMU 260)*를 투입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* 최대 260Km급 동력분산식(중간객차에 동력장치 분산 배치) 열차로 전체 차량을 객차로 활용할 수 있어 수송력이 높고 가감속 성능 우수, 동력차 장애 시 정상운행 가능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신용섭 사무관(☎044-201-395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익산~대야 복선전철 · 군장산단 인입철도 개통 계획

□ 개통행사(안)

- 일 시 : 2020. 12. 10(목) 15:00
- 장 소 : 군산항역 철송장 (군산시 오식도동)
- 참 석 자 : 국회, 지자체, 철도관계자 등 100명 이내로 한정
*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정부지침 준수 예정
- 홍 보 : 보도자료 배포

□ 사업 현황

- 사업개요
 - (익산~대야) 군장선 단선→복선전철화(11.01→14.3km, 정거장1)
 - (군장 산단) 28.6km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 단선 비전철 철도건설(정거장1)
- 사 업 비 / 사업기간: (익산~대야) 4,946억원 / '11~'21 (군장) 6,167억원 / '11~'22
- 사업효과
 - (익산~대야) 장항선 복선전철 구간 중 첫 단계 개통사업(비전철 운행)으로 '24년 전 구간 완공시 서해안축 주요간선망(전라선~군산선~장항선~경부선) 구축
 - (군장 산단) 광양 부산권 등과 연계한 물류수송체계 확립으로 국가경쟁력 향상



참 고2

준공사진 전경





